

“한미, 공동 도전 함께 대처”

문 대통령, 美 국무·국방장관과 접견서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 공조 지속”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나갈 것이며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이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합동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두 장관의 첫 방문을 환영하며 “미국의 두 외교·안보 수장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하며 국제사회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백신 보급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획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회복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모두 바이든 행정부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더 나은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한미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한미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와 방위비 분담 협정 가시명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동맹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두 장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장관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뉴시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지역 스타기업인 ㈜고려자연식품을 찾아 7개 수출기업 대표들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18일 가졌다.

“수출기업 애로사항 적극 시책에 반영”

우범기 정무부지사, 도내 7개 수출기업 대표들과 현장간담회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지역 스타기업인 ㈜고려자연식품을 찾아 7개 수출기업 대표들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18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조동식 통상시장팀장, ㈜고려자연식품 홍성운 대표, ㈜휴먼드림 김모경 대표, 하이테크팜(주) 박민 대표, ㈜디자인농부 김요섭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와 마케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 영업활동 제약 등에 따라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정지역의 바이어 발굴과 화상상담, 샘플배송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의 인플루언서 활용 SNS마케팅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외규격인증이 국가별로 각기 달라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수출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니 기업의 시름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적극 시책에 반영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명품 하우스 감자 주산지 되도록 최선을”

농산경위, 김제 광활농협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8일 김제 광활농협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방문에 현장 및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 봄 감자 생산량의 35%를 차지할 만큼 김제 지평선 광활 햇감자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활농협을 방문,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농업인 소득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 1)은 “김제 지평선 광활 햇감자가 지역 내 대표적인 소득작목으로 각종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광활농협이 주축이 돼 전국 최고의 명품 하우스 감자 주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위원들은 국내 최초로 연구·생산·체임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허브구

축’을 위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방문,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훈열 의원(부안 1)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제조업과 연구개발업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전 단단지이므로 입주해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신규 기업 유치, 테마체험관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 홍보 활동을 통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송성환 의원(전주 7)은 “올해 준공 예정인 부안 신재생 융복합 테마체험관을 비롯해 고분자 연료 셀 퇴성 평가센터 및 스마트 융복합 필티클레스 조성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최고의 신재생에너지단지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자활센터 사업추진 현황 청취

환경복지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8일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및 ‘전북광역자활센터’를 방문해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현지의 정황등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을 찾아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과 최근 논란이 되는 아동학대의 예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돌봄종사자 교육과 시설 운영 컨설팅 등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돌봄 시설을 지원

하는 거점은 물론, 지역사회의 중심축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전북광역자활센터를 찾아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도내 지역자활센터 현황을 청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을 위해 자활 의지가 강한 참여자 욕구 및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현장 점검

행정자치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8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방문,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오는 22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금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김제 만경119 안전센터’와 ‘군산 향만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이 행정수요나 도정정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와 대상부지가 행정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최적지인지 등에 대해 살폈다.

/유호상 기자

“대표동 주민센터로 거점형 복지센터로”

이윤자 전주시의원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능을 강화한 거점형 행정복지센터로 선정해 찾아가는 동네복지의 유형을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윤자 의원은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7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과거 동사무소의 명칭이 일부 동은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됐으나 나머지 동에서는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혼용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 의원은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전주시도 평화동, 삼천2동, 인후3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동사무소를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으며, 2016년 행정복지센터의 전환은 그 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윤자 의원은 “전주시가 동네 복지에 정책 브랜드를 가지고 다양한 보편복지의 영역을 주민센터에 투영해 온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시책이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 후, “기존 3개동의 행정복지센터 명칭에 준하는, 복지허브기능을 강화한 대표동주민센터를 거점형 행정복지센터로 선정해 찾아가는 동네복지의 유형을 시스템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상 기자

21~23일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16일 현재 관할 선거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내 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6일에 최종 확정된다.

/유호상 기자

장애인 가정 반쪽짜리 출산비 지원 개선 시급

황영석 도의원, 신생아 아버지 장애인인 가정 지원대상 제외돼

도내 장애인 가정에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신생아의 부모 중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반쪽짜리 출산비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1)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4년 7월 ‘전북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가 장애인이면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비 지원 대신 국비 매칭 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하고, 신생아의 아버지가 장애인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지원대상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 장애인 가정으로 제한하다 보니 임신 후 도내로 전입하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사



체에 거주제한에 따른 구제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황영석 의원은 “도내 장애인 가정의 임신과 출생에 대해 출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외계층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신생아의 아버지가 장애인이어도 출산비를 지원하고, 거주기간 제한 역시 개선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향후 아버지가 장애인 경우에도 출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며, 거주기간 또한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해 사각지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챌린지 동참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이 18일 전국적으로 열기가 뜨거워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챌린지를 시작했다.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챌린지는 지난달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것으로, 성경찬 대표의원은 ‘군부정권 OUT!, 문민정부 GO!’가 적힌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동화 전주시의원도 18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강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 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다스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